

## 제4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재철 회장을 비롯한 무역인과 근로자 여러분,

마흔두번째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제가 더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각별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마디는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밤낮없이 뛰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땀 흘려 오신 근로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어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이라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무한한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역규모 5천억 달러 달성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위상을 보여 주는 쾌거입니다. 속도에 있어서도 경이적입니다. 1988년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천억, 3천억 달러가 되는 데 각기 7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천억 달러 이후 불과 3년 만에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값싼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명품으로 당당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출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쫓아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발짝 앞서 가면서 기회로 삼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동차·휴대폰·선박 등 주력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소재와 기계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혁신을 가속화하면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출, 더 높은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동반하지 않는 수출 증가라는 선진국들의 고민을 우리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 간 연관효과도 점차 줄어서 수출이 늘어나는데 어려운 곳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부품·

소제 산업을 더욱더 육성해서 수출과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무역인과 기업인 여러분,

매년 무역의 날마다 수출에 대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IT·BT·NT 등 신기술도 조기에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운,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수출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상품 수출과 동등하게 금융과 보험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서비스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체제도 보강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수출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지역 등 산유국의 오일달러를 유치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나라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더욱 늘리고, 기계류와 같은 연관 품목 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국무총리가 중동 5개국을 방문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을 목표로 전자무역망 구축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해외 물류지원센터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해서 안

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길을 닦고 제도를 마련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달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뛰시다. 손을 잡고 해 나가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과 자유무역 파고에 적극적으로 도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출 5천억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활짝 열어 갑시다.

다시 한번 무역의 날을 축하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